

119구급대원의 공감피로와 소진의 상관관계 연구

강광순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among 119 Paramedics

Gwang Soon Kang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공감피로와 소진정도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구급대원의 공감피로 및 소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로 2022년 5월 9일~6월 30일까지 전남 지역 소방본부 구급대원 12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네이버 오피스 설문조사 폼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공감피로는 평균 25.75 ± 4.73 점, 소진 정도는 평균 25.90 ± 4.41 점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와 소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피로($t=-4.53, p=.001$)와 소진($t=-3.87, p=.001$)점수가 높았으며, 근무기간은 5년 이상에서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87, p=.001$). 연구참여자의 공감피로와 소진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공감피로는 소진($r=.74,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에서 5년 이상 근무자와 여성의 경우 소진이 더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공감피로를 해소하고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burnout prevention program and to confirm a correlation exists betwee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among paramedics. An anonymous Naver Office survey form was used to target 120 paramedics at the fire headquarters in Jeonnam from May 9 to June 30, 2022. Among the 119 study subjects included in the analysis, fatigue averaged 25.75 ± 4.73 points, and burnout averaged 25.90 ± 4.41 points.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showed women had higher sympathy fatigue ($t=-4.53, p=.001$) and burnout ($t=-3.87, p=.001$) scores than men. In addition, burnout was higher in those who had been working for > 5 years ($F=-3.87, p=.001$), and the analysis showed compassion fatigu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urnout ($r=.74, p=.001$). Moreover, mean burnout level appeared to be elevated among paramedics and women who had worked as paramedics for > 5 years.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relieve compassion fatigue and manage burnout among paramedics.

Keywords : Disasters, Paramedic, Compassion Fatigue, Burnout, Correlation

This paper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s from the Gwangju University.in 2024.

*Corresponding Author : Gwang Soon Kang(Gwangju Univ.)

email: kskangpia@gwangju.ac.kr

Received November 2, 2023

Revised January 8, 2024

Accepted February 6, 2024

Published February 29,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급속한 지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재난 대응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1]. 한국은 2016년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체계, 인력, 물품 등 재난응급의료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초판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일어나는 재난의료대비 및 대응의 근거가 되고 있다[2]. 재난은 신체·정신·사회·경제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재난 발생 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재난의 일차적 피해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나,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와 조력자들이 받는 이차적 피해에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또 하나의 피해자로서 지속적이고 고품질의 재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난 업무 종사자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 업무 종사자에는, 수색 및 구조대원, 수송 및 복구 인력, 소방관, 경찰관, 의료인 및 구급대원, 정신건강 및 사회 서비스 요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최근 연구를 보면 재난업무종사자 연구에 있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 학생, 청소년상담사, 소방관을 대상으로 재난대비인식, 재난대비 역량 및 재난교육요구에 관한 연구[3]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119구급대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 작용으로서 119구급대는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제공하여 중증질환 응급환자를 소위 골든 타임 안에 병원 내 응급의료체제로 진입시켜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 의료인에게 응급의료를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4].

119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면서 응급의료를 행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응급의료종사자 지위도 갖게 되는데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로 응급환자에 대해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응급의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거부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 대해 우선 응급의료를 행하며, 응급환자에 대

해 설명 및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5]. 119 구급대원은 직무 특성상 긴급 출동을 위해 항시 대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긴장감을 받고 응급처치의 신속성 및 그 질에 따라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압감을 받는다. 또한 화재현장, 고속도로 사고현장 등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으며 이로 인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119 구급대원 출동 시, 환자와 보호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하여 흥분하고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구급대원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는 출동 시 업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며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한다[6]. 이들은 직무 특성상 재난 관련 외상적 경험 노출, 감정적 소모가 심하고 업무상 스트레스의 위험성이 높지만 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에는 구체적 도움을 줄수 있는 사회적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시 구급대원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소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기피, 보건소· 119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COVID-19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7]. 재난구조 인력이 보일 수 있는 공통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재난생존자와 동일한 이차적 외상을 겪게 된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란 직접적으로 외상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일차적 외상 피해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리 외상화 반응으로 PTSD로 진행하게 된다[7]. 2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STS)는 다른 사람의 외상에 감정 이입되어 나타나는 영향 또는 위협이라고 정의되거나, 조력자가 겪는 역전이 현상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8]. 이러한 2차적 외상스트레스와 동일한 개념이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CF)이다. 재난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대리피해(vicarious victimization) 등과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수행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공감피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관심, 불안, 짜증, 무력감, 발한, 부정적 성향, 물질사용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증상이 6개월 이후 출현한 경우에는 지연 발병으로 본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소진(burn out)으로 진행된다. 소진은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탈진하여

작업 수행력의 저하가 초래된 상태를 말하며 주요 증상으로 피로, 불면증, 우울, 신체 질환,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자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911 테러 당시 구조에 참여하였던 소방관의 PTSD 유병율은 1년 후 9.8%, 2년후 9.9%, 3년 후 11.7%, 4년 후10.6%로 나타나 재난 업무 종사자의 정신 건강 문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9]. 아이티-지진이나 뉴욕의 911 테러 당시에 진료에 참여했던 정신보건 인력 중 적지 않은 수가 이차적인 외상과 연관된 정신병리에 이환되었다고 보고하였다[10]. 그러므로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겪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재난지원인력에 대한 정신보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감 피로나 소진을 예방하고 회복을 지향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재난대응인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재난 업무 종사자에 대해 주로 주요정신질환을 측정하는 연구가 많으나 공감피로와 소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폭력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11-13] 등이 있지만, 119구급대원의 공감피로와 소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의 119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공감소진과 공감피로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119 구급대원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따라서 직무특성상 재난 관련 외상적 경험 노출, 감정적 소모가 심하고 업무상 스트레스의 위험성이 높은 119구급대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공감피로와 소진을 확인하여 소진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모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남 지역의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공감피로와 소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공감피로와 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와 소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공감피로와 소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남 지역 구급대원의 공감피로 및 소진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남의 구급대원으로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다. 본 연구대상자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로 한 결과 최소 표본수가 107명이었으나 대상자 탈락을 고려하여 120부를 조사하였고,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11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공감피로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란 외상을 입은 사람이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간접적인 외상의 징후들을 의미한다[8]. Figley[8]가 개발하고 Stamm [14]이 수정·보완한 ProQOL Scale Version 5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피로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로 나타났다.

2.3.2 소진

소진(Burnout)이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 심리적 경험으로 대인관계를 주로 하는 조직구성원들이 겪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가 결여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15]. Figley[8]가 개발하고 Stamm [14]이 수정·보완한 ProQOL Scale Version 5를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점수의 해석은 22점 이하는 '낮음' '23~41'점은 보통, 42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전 전남지역소방본부에 연락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22년 5월 9일~6월 30일까지 2022년 전남지역 소방본부 구급대원 12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네이버 오피스 설문조사 폼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의 동의 및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는 동의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수집내용은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근속연수, 자격) 4문항과 공감피로 10문항, 소진평가 10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설문조사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공감피로, 소진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와 소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공감피로, 소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79명(67.5%)였으며, 여자가 38명(32.5%)였다. 평균 연령은 34.72세였으며 30대가 82명(70.1%), 40세 이상이 19명(16.2%), 20대가 16명(13.7%)이었다. 간호사가 67명(57.3%)였으며, 응급구조사가 50명(42.7%)이었다. 근속연수는 5년 이상이 40명(34.2%)로 가장 많았으며, 1년이상-3년미만이 39명(33.3%), 3년이상-5년미만이 22명(18.8%), 1년미만이 16명(13.7%)순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공감피로와 소진 정도

연구 참여자의 공감피로는 평균 25.75 ± 4.73 점이었으며, 소진 정도는 25.90 ± 4.41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항목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79(67.5)
	Female	38(32.5)
Age	20-29	16(13.7)
	30-39	82(70.1)
	≥40	19(16.2)
certify	E.M.T*	50(42.7)
	nurse	67(57.3)
service year	<1y	16(13.7)
	1-3y	39(33.3)
	3-5y	22(18.8)
	>5y	40(34.2)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2. Degree of compassion fatigue, burnout, (N=117)

Variables	Categor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SD	Range
Compassion fatigue	total	10.00	48.00	25.90±4.73	1~5
	1	1	5	3.85±.84	1~5
	2	1	5	3.66±.86	1~5
	3	1	5	3.71±.89	1~5
	4	1	5	2.62±1.13	1~5
	5	1	5	2.16±.97	1~5
	6	1	4	1.92±.84	1~5
	7	1	5	2.20±.94	1~5
	8	1	5	2.03±.90	1~5
	9	1	5	2.07±.97	1~5
Burn-out	total	11.00	46.00	25.90±4.41	1~5
	1	1	5	1.74±.85	1~5
	2	1	5	3.67±.90	1~5
	3	1	5	3.49±.89	1~5
	4	1	4	2.33±.98	1~5
	5	1	4	2.04±.84	1~5
	6	1	4	1.91±.86	1~5
	7	1	4	1.78±.85	1~5
	8	1	4	1.73±.87	1~5
	9	1	4	1.68±.73	1~5
10	2	5	3.68±.79	1~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와 소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와 소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감피로($t=-4.53$, $p=.001$)와 소진($t=-3.87$, $p=.001$)점수가 높았으며, 근무기간은 1년~5년근무자보다 1년이하와 5년이상에서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3.87$, $p=.001$) 대상자의 소진은 사후검정 결과 근무기간이 5년 이상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7)

Variables	Categories	compassion fatigue		burnout	
		M±SD	t/F(P)	M±SD	t/F(P)
Gender	Male	19.84±5.18	-4.53 (.001***)	20.20±5.74	-4.53 (.001***)
	Female	25.16±6.30		24.68±6.13	
Age(yr)	<20	21.25±5.52	0.14 (.874)	20.62±6.06	0.29 (.751)
	30~39	21.48±6.21		21.74±6.16	
	≥40	22.21±6.22		22.16±6.81	
qualification	E.M.T	21.08±5.96	-0.74 (.459)	20.72±6.88	-1.42 (.159)
	Nurse	21.93±6.19		22.36±5.62	
service year	<1y	23.44±6.74	1.71 (.167)	22.19±6.19	-3.87 (.001***) b<d
	1~3y	20.36±5.98		20.44±5.15	
	3~5y	20.41±4.96		20.77±4.93	
	>5y	22.63±6.30		23.13±6.21	

* p<.05, **p<.01, ***p<.001

3.4 공감피로와 소진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공감피로와 소진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공감피로는 소진(r=.74,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compassion fatigue, burnout (N=117)

Variables	Compassion fatigue	burnout
	r(p)	r(p)
Compassion fatigue	1	
Burnout	.74((.001**)	1

* p<.05, **p<.01,

4. 논의

본 연구는 전남지역 구급대원의 공감피로와 소진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며, 공감피로와 소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공감피로 평균 25.75±4.73점, 소진 25.90±4.41점으로 공감피로와 소진은 낮은 정도를 보였으며, 여성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에서 소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감피로와 소진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에서 남자가 약 67%, 여자가 32.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소방청 통계연보[16]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8개 시도 전체 소방공무원 51,779명중 여성 소방공무원은 4,327명으로 8.35%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여성참여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13].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간호사가 약 58%로 응급구조사보다 더 많았다. 현재 간호사는 2018년 통계연보에서 1,328명으로 전체 119구급대원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6]. 2021년 응급구조사중 간호사 비율이 114,430:30316명으로 약 26%를 차지하고 있었다. 2021년 전남지역 구급대원 비율은 구조사 870:209명으로 간호사는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피로 25.75점, 소진 25.90으로 나타났으며, 임상간호사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감피로 28.88점, 소진31.22점으로 임상간호사보다는 구급대원의 경우 공감피로와 소진의 정도는 좀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피로와 소진에 대한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자 구급대원이 남자 구급대원에 비해 공감피로와 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폭력경험이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18]. 예로 2018년 4월 OO역 부근에 사람이 쓰러져 출동, 후송하던 중 주취자가 여성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수 있다[19]. 여성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력경험을 연구에 구급업무수행 중 94.9%가 언어적 폭력, 32.5%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폭력 노출 후 79.4%가 수치심을 느꼈고, 41.2%가 7점 이상(10점 만점)의 스트레스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39.3%가 폭력경험으로 인한 이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16]고 응답하여 여성구급대원의 경우 폭력노출로 인한 소진이 심각한 정도임을 알수 있다. 또한 공감피로와 소진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여성 구급대원은 퇴근 후 가사 업무 및 어머니 역할을 수행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라 1년 미만이거나 5년 이상인 경우가 1~5년이내의 근무자에 비해 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근무자의 경우 소진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급대원 289명을 대상으로 소진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소진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경력이 4-12년 미만 군과 12년 이상 군에서 4년 미만군보다 소진이 높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5년 이상 경력의 구급대원은 대부분 소방교 이상으로 신규교육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며 진급시험으로 부담감을 느껴 5년 이상일 경우 소진

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17]. 즉, 구급대원의 공감 피로가 소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면서 5년 이상근무한 경우 공감피로와 소진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공감피로와 소진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공감피로는 소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피로감과 정서적 무기력함, 사회적 위축, 열정과 희망의 감정에 무뎠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대인관계 문제가 나타나는데 공감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소진과는 달리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 회복 속도도 소진보다 빠르다[18]. 또한 공감피로는 소진에서 느끼기 힘든 공포감이나 슬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19]. 공감피로와 소진의 차이점은 바로 증상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감피로의 증상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보는 순간 생기는 결과이지만, 소진은 조직업무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원이 피해자 집단과 함께 일하면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다[20]. 소진은 외상을 입은 특정한 피해자에 노출되어서 일어나기보다는 직장에서의 만성적인 권태감과 관련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공감피로를 정신보건 상담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있다[21,22].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구급대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J도 지역의 특성상 농촌과 어촌에 분포하여 도시형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사고나 재해발생이 타시도에 비해 낮아 공감 피로와 소진이 평균보다 높지는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이거나 5년 이상근무자의 경우 공감피로와 소진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공감피로 및 소진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 여자 구급대원에 대한 공감피로와 소진 정도를 낮추기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여자 구급대원의 공감피로와 소진이 남자 구급대원에 비해 높은 이유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여자 구급대원이 남자 구급대원에 비해 공감피로와 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라 5년 이상근무자의 경우 소진정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공감피로와 소진간

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공감피로는 소진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에서 5년 이상 근무자와 여성의 경우 소진이 더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공감피로를 해소하고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BJ Lee, "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ntelligent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in Preparation for Future Disaster". *J Korean Soc Disaster Secur* 16, 1, 37-48, 2023. DOI: <https://doi.org/10.21729/ksds.2023.16.1.37>
- [2] Lee HY. "Disaster support personnel mental health assessment exhausti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reventive recovery protocols". 2016. https://www.ncmh.go.kr/ncmh/board/commonView.do?sessionId=5taFuf64UGXFGFIJ7WcsAZ4BVuc30M38i9vtgmAy2HpOmxkqxDtc7TteHGDdijSk.mohwwas1_servlet_engine1?no=3963&fno=84&bn=newsView&depart=&menu_cd=04_03_00_01&bno=&pageIndex=1&search_item=&search_content
- [3] Lee YR, Kang HL, "A Study on Disaster Preparedness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y and Disaster Educational Needs in Fire-fighting Offic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19, pp.845-866, 2017.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ART002274640>
- [4] Hong YP, *Legal responsibility for 119 paramedic's on-site emergency medical practice*.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2019. South Korea, Seoul.
- [5]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National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202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 [6] Park KS, Choi SW.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experience with psychosocial stress and burnout in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the ICT age". *Journal of the KIECS*. 11, 11, 1149-1158, 2016. DOI: <https://doi.org/10.13067/JKIECS.2016.11.11.1149>
- [7] Kim S Y, Hwang IH, Kim DS, "A Study on Information System for Safe Transportation of Emergency Patients in the Era of Pandemic Infectious Disease".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8, 4, 839-846, 2022. DOI: <https://doi.org/10.15683/kosdi.2022.12.31.839>
- [8] Figley, C. R. (1995), *Compassion fatigue*, New york: Bruner/Mazel. <https://awspntest.apa.org/record/1995-97891-000>

- [9] A Berninger, P. Webber, D. J. Prezant, "Trends of Elevated PTSD Risk in Firefighters Exposed to the World Trade Center Disaster: 2001-2005". *Public Health Reports*, 125, 4, July, 2010.
DOI: <https://doi.org/10.1177/003335491012500411>
- [10] T. L Cremer, & B. J. Linddle.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disaster mental health workers responding to the september 11th attack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1, 89-96, 2005.
DOI: <https://doi.org/10.1002/jts.20008>
- [1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being bossy to men in uniform, stop!", 2018.06.05.,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3944
- [12] Yun YJ, Hong SW, "Effects of job stress and burnou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119 EMTs"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22, 3, 131~148, 2018.
DOI: <https://doi.org/10.14408/KJEMS.2018.22.3.131>
- [13] James, R K. Gilliland, B E.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4th ed.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 2001.
<https://psycnet.apa.org/record/2001-01187-000>
- [14] Stamm, B. H. The ProQUOL Manual. Lutherville, MD: Sidran Press, p.5, 2005.
<https://citeseerx.ist.psu.edu/document?repid=rep1&type=pdf&doi=223baf2a172af85f96417ee10a575642382896bd>
- [15] Maslach, C., & Jackson, S. E.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 1981.
<https://psycnet.apa.org/record/1997-09146-011>
- [16] Statistics Korea, Status of 119 emergency services. 202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6&tblId=TX_15602_A002&vw_cd=MT_ZTITLE&list_id=156_15602_A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
- [17] Jeong E, Jung MR, "Effect of Work-life Balance, Compassion Satisfaction, Compassion Fatigue, and Burnout on Gri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 3 438-446,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3.438>
- [18] Jung, HY, Song HS, Bang SH, "Effects of a violent experience and job stress on burnout in femal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23, 3, 135~143, 2019.
DOI: <https://doi.org/10.14408/KJEMS.2019.23.3.135>
- [19] Kim HJ, Choi ES. "The experience of violence and turnover intention of female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17, 2, 65-76, 201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950560>
- [20] Iliffe, G., & Steed, L. Exploring the counselor's experience of working with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4, 393-412, (2000).
DOI: <https://doi.org/10.1177/088626000015004004>
- [21] Anderson, D. G. Coping Strategies and Burn-out among Veteran child Protection Workers, *Child abuse & Neglect*, 24, 6, 839-848, 2000.
DOI: [https://doi.org/10.1016/S0145-2134\(00\)00143-5](https://doi.org/10.1016/S0145-2134(00)00143-5)
- [22] Meyers, T. W., & Cornille, T. A. The trauma of working with traumatized children. In C.R. 2002.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0203890318-4/trauma-working-traumatized-child-ren-tracy-woodard-meyers-thomas-comille>

강 광 순(Gwang Soon Kang)

[정회원]



- 1996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1년 3월 ~ 2012년 2월 : 목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학, 정신건강, 스트레스, 마음챙김